



히잡의 가치

RETHINKING MUSLIM WOMEN AND THE VEIL

캐서린 벌록 지음 | 김희석 역



Katherine Bullock

캐서린 벌록은 1999년 토론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캘리포니아와 토론토에서 '이슬람 문명과 정치'를 가르쳤다. 2002년부터 최근 부임지인 토론토대학에서 '이슬람 정치'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비영리 연구소인 테슬릿연구소와 새로 설립된 출판사인 컴파스북스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슬람 사회과학 미주저널의 편집장을 맡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아메리카의 이슬람 사회과학자 연합부 대표를 맡았다.

주요 간행물은 북미에서의 여성 무슬림활동, 다시 생각하는 여성 무슬림과 베일(역사 및 근대사적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 등이 있으며 프랑스어와 터키어로 번역되었다.

저자는 1994년 무슬림이 되었으며 호주 출신이지만 현재는 남편,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운동가이며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원제 : 무슬림과 히잡에 대한 재고
(역사 및 근대적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

히잡의 가치

히잡의 가치

| 초판인쇄 | 1판 1쇄 2020년 08년 30일

| 저 자 | 캐서린 벌록

| 역 자 | 김희석

| 펴 낸 이 | 최검열

| 출판총괄 | 강윤현

| 기획총괄 | 김현상

| 편집책임 | 구분희

| 편 집 | 신소미, 이수정

| 디자인 | 정현석

| 펴 낸 곳 | 도서출판 밀알

| 등록번호 | 제1-158호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7, 성지하이츠빌딩 3차 1412호

| 전 화 | 02) 529-0140

| 팩 스 | 02) 6008-7524

ISBN 978-89-418-0311-9

■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III T 간략 본 시리즈

히잡

Katherine Bullock

국제 이슬람 사상 연구소, 2010

International Institute of Islamic Thought

국제 이슬람 사상 연구소(III T)

P.O. Box 669, Herndon, VA 20172, USA

www.iiit.org

III T 런던사무소

P.O Box 126, Richmond, Surrey TW9 2UD, UK

www.iiituk.com

이 책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적 예외와 관련 라이선스 협정 조항에 따라,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부분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나타난 견해는 저자의 의견이며, 출판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ⅢT 간략 본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원본의 주요 내용들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압축적 형식으로 서술된 연구소의 주요 출판물을 수집한 소중한 자료 모음집이다. 짧으면서도 가독성이 높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안내서들은 장편 출판물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원본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캐서린 벌록 박사의 '히잡' 논문은 ⅢT가 2002년에 처음 출판하였고 2007년에 재판되었다.

이는 히잡을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해석하려는 일반적인 서구 생각에 대한 강력하고 지적인 비평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이슈가 불러일으킨 사회정치적 우려들을 제시하면서, 저자는 히잡에 대해 식민주의와 하람 숭배의 측면들을 포함한 서구의 역사적 고정관념을 고찰하고, 여성주의적 담론을 평가하는 한편 히잡에 대한 대안이론을 제시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저자가 캐나다에서 히잡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한 한 이슬람 여성의 견해, 의견, 경험 및 관점들을 담은 목소리이다.

저자는 박사과정 중에 이슬람을 수용했고 흥미롭게도 그의 개종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경험이 최초 논문 주제 대신 히잡을 박사과정의 주제로 결정하게 되었다. 역사 및 문화적 오해들로 점철된 이 분야에 대한 세심한 연구

를 통해 저자는 오늘날에 이러한 중요한 쟁점들 대부분을 구성하는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근본 요소들에 대한 도전을 추구했다.

벌록 박사의 연구는 서구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정치문제의 중심이 되어버린 히잡에 대한 연구나 논쟁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Abridged Edition by Katherine Bullock of her Original
RETHINKING MUSLIM WOMEN AND THE VEIL :
Challenging Historical and Modern Stereotypes Katherine
Bullock

CONTENTS

프/롤/로그 11

첫/번/째/장 17

식민통치 시대의 히잡 19

근대의 형이상학 22

시선과 히잡 23

결론 25

두/번/째/장 27

캐나다에서의 히잡 착용의 인식과 경험 29

히잡에 대한 인식 32

1. 왜 히잡을 착용하는가? 32

2.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해석? 33

세/번/째/장 37

히잡의 다양한 의미 39

가리는 이유 41

히잡의 의미 : 서구 미디어의 관점 44

네/번/째/장 47

메르니시와 히잡에 대한 담론 49

메르니시와 방법론 50

꾸란과 순나(선지자의 언행록)에 등장하는 여성과 성 53

결론 56

다/섯/번/째/장 57

히잡에 대한 대안이론 59

A. 히잡과 자유화 B. 히잡과 남성의 시선 60

C. 히잡과 여성다움	63
D. 히잡, 성, 그리고 본질주의	65
E. 히잡과 선택	67
F. 히잡과 종교성	68
G. 결론	70
결론	71

역/자/의/말 79

참/고/문/헌 81

1991년 터기 여성들이 히잡으로 회귀한다는 방송을 보면서 나는 그들에 대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아직까지도 문화에 의해 세뇌당하는 여성들이 가엽게만 여겨졌다. 많은 서구인처럼 나 또한 이슬람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으며, 히잡이야말로 그들을 억압하는 상징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4년 후 상점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이 억압받고 있던 여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 내 스스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박사과정 중에 시작했던 4년간의 영적 여행은 무슬림으로 개종하며 마무리되었고, 이 여정은 이슬람에 대한 증오로 출발하여 존경과 관심 그리고 수용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도 히잡은 여자로서 가장 중

요한 문제였다.

이슬람의 신학적 근간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관습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고, 문화적 전통인 히잡은 여성 무슬림들이 충분히 노력하여 타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

꾸란 구절들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가리도록 지시한 것을 믿는 많은 무슬림들을 보았고, 내가 보기에도 꾸란 구절들이 분명히 이것을 지시하는 것이 확실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착잡한 감정과 함께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연민이 들었다. 꾸란 구절이 더 명확했다라면 히잡이 무슬림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우선 나는 무슬림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히잡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야 했다. 나의 최종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종교의 근본적인 신학 메시지였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선지자입니다.’

수년간의 연구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다.

1994년 7월, 박사과정이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최종적으로 무슬림이 되기로 하였을 때 나는 히잡을 착용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계명이며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학과 사람들에게 내가 무슬림이 되었고, 다음에 만날 때는 히잡을 착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다소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리고 이내 소문이 퍼지더니 새로운 옷차림의 여성을 보면서 다소 적대적으로 대우받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인하고 열성적인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내가 어떻게 억압적인 관습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 하마스가 한 일이나 일부 무슬림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한 일들을 마치 들어본 적 없는 듯이 이슬람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반감들을 잘 준비하지 못했고 내 주변 사람들과 공무원, 지하철 행인 등 모두에게 다르게 대우받는 것들도 준비가 되지 못했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똑같았지만 종종 경멸적인 대우를 받았다. 중산층 백인 여성으로서의 이전에 받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다. 처음으로 경험한 차별이었으며 이전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우월적인 나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다.

나의 새로운 종교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반응들을 타결해 나가면서 주변에 개종하거나 기존 무슬림인 여성들이 나를 위로해주었다. 내가 궁금해하는 상황들을 여성 무슬림 친구들은 어떻게 극복했던 것일까? 그들도 토론토시 한복판에서 히잡을 착용하고 서 있던 경험을 나처럼 했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했던 것

일까? 시민들은 정말 지하철을 쳐다본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왜 내가 경멸과 가려한 대상으로 대우받았어야 했던 것일까? 박사 논문 주제를 결정해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히잡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야말로 탐구의 가치가 있는 주제로 명확하게 다가왔다. 왜 ‘히잡’은 서구사람들에게 억압의 상징이 되었는가? 왜 서구가 이슬람을 비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어떻게 나와 내 친구들은 무언가에 헌신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주변 비 무슬림 사회와는 충돌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우리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형태의 히잡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위한 여정의 산물이다. ‘히잡의 가치’ 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히잡을 억압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서구인들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타개하는 것이다. 나의 주장은 히잡이 여성 무슬림들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라는 서구의 일반적인 개념은 만들어진 이미지이며 히잡을 착용하는 모든 이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항상 서구사회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왔으며 20세기 말까지도 지속 사용되어왔다. 또한, 주장컨대 히잡이 억압적이라는 판단은 ‘자유’와 ‘평등’의 자유로운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히잡 착용의 고찰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 번 / 째 / 장

식민통치 시대의 히잡

근대의 형이상학

시선과 히잡

결론



식민통치 시대의 히잡

어느 시점부터 서구사회에서 히잡이 억압의 상징이 되었을까? 이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시작점을 집어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18세기 유럽인들의 눈에 히잡은 이미 무슬림 사회에서 억압의 형태로 비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1717부터 1718년간 외교관을 지낸 남편 에드워드 워틀리 몬타규경(Edward Wortley Montagu)을 따라 터키로 여행을 했던 영국의 귀부인 메리 워틀리 몬

타규 부인(The British Lady Wortley Montagu)은 히잡이 억압적인 것이라는 의식에 반박했다.

터키에 머무르는 동안 히잡을 착용했던 부인은 히잡이 여성들을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외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히잡은 여성들에게 억압이 아닌 자유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히잡이 억압적이라는 인식은 19세기 유럽의 중동 식민지 시대에 접어들며 더욱 새롭고 중대한 의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흐마드가 자신의 저서에서 보여주듯 유럽 식민지배자들은 여성의 지위에 집중된 새로운 시선을 자신들의 중동 식민화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식민지배 시대 당시 유럽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직접적인 식민 통치자, 여행자, 예술가, 선교사, 지식인, 정치인, 여성인권운동가 등 모두가 여성 무슬림들은 그들의 문화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는 신념을 고수하였다. 히잡 착용은 여성 무슬림들이 마주한 억압요소 항목 중 하나로 여겨졌다. (일부다처제, 여성격리, 남성 위주의 이혼문화 등) 냉정하게 말하면, 히잡은 땅에 떨어진 여성의 지위에 대한 줄임말이자 당시 유럽의 학자들이 내놓은 동양학자의 관점에 근거한 중동에 대한 유럽의 문화적 우월주의 신념을 비유적으로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히잡이 중동 사회의 강압과 억압을 대변한다는 의견

에 비단 서구 세계만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중동 사회의 소위 ‘엘리트’들 또한 자신들의 문화를 바라보는 동양 학자적 시각을 수용하고 고수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뒤쳐져 있으며 중동 여성들의 지위는 땅에 떨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진단 및 해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히잡을 벗는 것이 서구의 발전된 문화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으로써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자연스럽게 히잡의 착용 여부는 국가의 발전과 쇠퇴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또한, 현대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상류층이었던 만큼 반대파들의 히잡 착용 논의들은 히잡과 히잡의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경건/부유함/지위 등의 상징)에 애착을 가진 계층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였다. 히잡 반대에 관한 논의는 한 국가에서 국민 간의 균열을 만들었다. 서방국 중심적인 엘리트들과 식민지배 및 통치,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여 식민통치로부터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계층이 한 축을 이루는가 하면, 간극의 반대편에는 전통 무슬림 학자들과 피지배층 등 제국주의로부터 고통받고 ‘서양식’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축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듯 히잡이 억압적이라는 주장은 지배로부터 나왔거나 최소한 서구의 지배의도로부터 나왔다. 히잡이 여성 무슬림들의 억압을 대변한다는 여느 주장들은 좋은

그렇지 않은 히잡에 관한 서구의 동양학자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담론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히잡에 관한 여러 토론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양상을 띠곤 한다. 아흐마드의 주장과 같이 히잡은 제국주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양학자적 관점이 담긴 짐을 운반해왔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서의 히잡에 관한 논란들은 위와 같은 제국주의 시절에 계층 및 문화적 단절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근대의 형이상학

만약 히잡이 1700년대부터 서구인들의 눈에 억압적인 도구로 보였다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히잡에 대한 높아진 관심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장에서 나는 히잡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로서 눈빛을 차단하는 히잡의 특성을 꼽는다. 이에 대한 여타 논의는 근대 제국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 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히잡을 공격하는 세력들의

주장을 설명해준다.

나의 분석은 이집트 식민화 과정에서 티모시 미첼(Timothy Mitchell)이 주장한 동서양 근대 역학관계의 만남 즉, 개인이 자신을 이 세계 밖의 관찰자로 느끼는 상태에서(세상이 전시회인 것처럼) 물질적 세계를 하나의 사진 또는 그림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서양과, 물질적 세계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던 비유럽 세계의 만남에서 더 나아가는 주장이다.

시선과 히잡

현대적인 추세에 대한 정점이라면 1851년 여름 만국 박람회에 대하여 타임지(The Times)에 실린 기고문 “우리는 이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에서 ‘우리는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을 유리 상자 안에 넣고 관찰하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

미첼은 이것이야말로 ‘객관성’에 대한 근대적 경험이

라고 설명한다. 세상을 발아래에 두고 중립적인 곳에서 관찰하는 느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성에 대한 시선이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가? 이러한 관점은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시선을 필요로 한다. 또한, 무슬림들은 자신들을 관찰의 대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제국주의 시절 중동에 도착한 유럽인들 앞에 놓인 여성들이 히잡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환경이 그들을 얼마나 답답하게 만들었는지 짐작할 만하다. 이 여성들은 자신들을 만국박람회처럼 관찰의 대상으로 전시하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는 집이 관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었고(바깥쪽 창에는 가림막이 있었다), 남녀가 차별된 공간에서 차별된 생활을 하기에 더더욱 그러했다. 히잡을 쓴 여성은 세상의 전시회적 관점의 모든 것을 어긴 것이다. 그들은 보이지를 앓았고,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들은 볼 수 있었고 관찰하거나 해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그림이 아니었다. 그들은 타지인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보이고 싶지 않은 신비한 존재들이었다. 바로 이점이 유럽 시각에서 히잡에 대한 반감을 키운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인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문명의 정상에 있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중동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중동에 도착함과 동시에 위협받았다.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없는(보이지 않고 그림으로도 답을 수 없는) ‘미확인 생물체’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거나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통제될 수 없었으며, 유럽인들은 자신들은 볼 수 없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편한 감정을 자아냈다.

이 점은 중동 여성들로 하여금 유럽인들에 대해 우월한 힘을 갖게 하였다. 예상과는 정반대되는 상하관계의 전개였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유럽인들은 이러한 전개에 분개하며 히잡을 공격하였고 찢으려 하였다. 여성들을 들춰내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그림이나 사진 속의 중동 여성을 나체 또는 옷을 벗겨내어 들춰내려 하였다. 이로써 ‘여성 무슬림 히잡 벗기기’ 캠페인은 막을 열었다.

| 결론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구조 간의 차이가 이를 대

변하는 ‘근대의 형이상학’이 유럽인들로 하여금 중동 여성들의 히잡을 공격하게 하였다. 히잡은 유럽인들의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 비전, 즉 동양문명에 대한 유럽 문명의 타고난 우월함과 그 우월함을 바탕으로 동양을 문명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저해하고 방해하는 존재였다.

정복 시기의 담론은 서구우월주의에 관한 생각들과 여성 지위에 관한 관심을 촉발하여 피정복자들에 관한 담론에 중요한 발전단계로서 역할을 했다. 중동의 엘리트들은 히잡 착용 등과 같은 특정 관심에 대한 유럽식 이해를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신앙의 상표, 부나 지위의 상징으로 통용되던 히잡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들에 더해 히잡이 억압과 퇴보의 상징이라는 견해가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서구화된 소수 엘리트와 비 서구화된 다수 일반 계층 간의 분열이 증가하였다.

아흐마드가 말한 것처럼 히잡에 관한 담론은 제국주의 강탈의 역사와 이를 둘러싼 계급투쟁 및 대항의 역사로 얼룩졌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현대 이슬람 세계의 분쟁들을 형성하고 있다.



두 / 번 / 짜 / 장

히잡의 다양한 의미

가리는 이유

히잡의 의미 : 서구 미디어의 관점



캐나다에서의 히잡 착용의 인식과 경험

내가 히잡을 착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캐나다 퀘벡주에 위치한 몬트리올에 사는 두 명의 학생들이 수업 중 히잡을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되돌려 보내졌다. 이와 같은 사건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히잡의 의미와 히잡이 캐나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캐나다에서 히잡에 대한 논란은 히잡 착용이 궁극적으로 ‘외국인’ 관습이며 캐나다인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서 기인한다.

한 캐나다 방송국의 조사보고서는 ‘과연 히잡은 캐나다 일부로 수용되는 리트머스지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다. 학교에서 쫓겨난 여학생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캐나다인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더 글로브 앤 메일’ 언론에 실린 제프리 심슨(Jeffery Simpson’s)의 사설에서 그는 여성 무슬림들이 원한다면 히잡을 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이내 히잡은 여성 무슬림들의 억압된 삶의 증표라 주장하는 두 명의 격양된 여성들의 반응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논란들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히잡을 실제 착용하는 여성 무슬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번 장에서는 무슬림인 캐나다 여성 중 히잡을 착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여러 논란에 가로막혀 생긴 빈 공간을 그들의 목소리로 채워보고자 한다. 단지 이들의 말 몇 마디로 나는 무슬림 전체가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목적은 단지 단 몇 명의 여성 무슬림들의 히잡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그 근교에 거주하

는 열다섯 명의 수니파 여성들과 한 명의 시아파 이스마일리 여성을 1996년 5월에서 7월 사이의 기간을 두고 취재하였다. 열여섯 명의 여성 중 여섯 명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열 명은 항상 히잡을 착용하였고(이 중 다섯 명이 개종자였다), 다섯 명은 가끔 히잡을 착용하였으며, 전체 여성 중 단 두 명만이 앞으로 살면서 어느 시점에 히잡을 상시 착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열다섯 명의 수니 여성 중 단 한 명만이 하루 다섯 번 예배를 하지 않았고, 시아파 이스마일리 여성을 포함한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종교적인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북미 지역에서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무슬림으로서 모스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몇 안 되는 무슬림 신자들이다. 취재 여성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가명의 사용했다.

히잡에 대한 인식

1. 왜 히잡을 착용하는가?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 무슬림들은 종종 캐나다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여기는 캐나다야. 자유로운 곳이니까 히잡을 쓰지 않아도 돼.” 이러한 조언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재미난 경험일 수도 불쾌한 경험일 수도 있다.

남아시아에서 온 학부생 누르는 학교 도서관, 매점에 서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을 했다. 어느 날 매점에서 한 나이든 여성이 그녀를 향해 매우 호전적인 어투로 왜 캐나다에 ‘퇴보’를 가지고 온 것이냐고 따졌기 때문이다. 그 여성은 누르를 향해 캐나다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히잡은 그러한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누르가 자신은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이나 반감을 사는 타깃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히잡을 착용한다는 점을 짚어주자 그 여성은 조금 진정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누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유야 어찌 되었든 누

르가 히잡을 쓰지 말아야만 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듯했다.

누르는 자신이 캐나다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이유를 비 무슬림 캐나다 여성들에게 설명할 때 종교적인 이유를 들곤 하였다. 히잡을 거의 착용하지 않는 파티마를 비롯한 모든 취재 여성들이 히잡 착용을 종교의 일부분으로 인식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히잡 착용이 종교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하였는지 질문했을 때 그들은 모두 “꾸란에 나와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명령하신다”라고 대답하였다. 영국 출신 개종자인 바시라 또한 “여성이 사춘기가 되면 그의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곳은 가려야 한다”라는 명령을 인용하였다.

2.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해석?

히잡 착용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에 관한 연구를 한 대부분의 여성학자들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다. 학자들은 그들이 인터뷰한 여성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꾸란에서 히잡 등을 착용하라는 명령이 담겨있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다. 이 학자들의 눈에는 꾸란은 단지 수수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요구할 뿐 이슬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히잡과 같은 베일을 착용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연구 방향을 이와 같이 설정해 놓는 것은 인터뷰한 여성들에 대한 무례함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마치 학자 자신들이 인터뷰한 여성들보다 꾸란을 더 알맞게 해석한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 차이에 대해 더욱 좋은 접근법은 카람의 이집트 페미니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카람은 이슬람주의 여성들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반면 그들의 방법론에는 깊은 존경을 표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슬람의 뿌리를 가지고 자란 여성 무슬림으로서 그들이 이슬람의 기본인 꾸란에 대한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음과 동시에 그들이 사회적인 적용에 있어서 사용한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카람은 히잡을 착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양쪽 모두 서로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이 잘못된 신념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서양세계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내가 대학에 히잡을 착용하고 가기 시작한 이후 동기 중 한 명이 내 친구에게 “저 친구는 자기가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하지만 서양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여성 중 그 누구도 무슬림 사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히잡에 관한 여러 논란을 의식하지 않고 히잡 착용을 결정할 수 없다. 히잡 착용은 무슬림 세계에서 긴 역사를 가진 전통이다. 현재의 논란들은 대부분 상대

적으로 새로운 것이며, 서구와의 제국주의 시절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다. 히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과 그로 인한 차별 및 희롱 등을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보아 캐나다에 살며 히잡을 착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인터뷰한 여성들만 해도 히잡을 착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은 고찰 없이 매일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 히잡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이끄는 학자들 또한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는 다양한 이유로 정치적 지위, 경제적 이유, 종교적 신앙 등을 들고 있다. 내가 취재한 여성들은 꾸란의 여러 해석을 고려하여 자신들에게 맞는 해석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모두 꾸란에서 명령하는 여성들의 머리를 가리는 행위가 간결하고 확고하다고 믿는다.

이슬람에 대한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은 이슬람은 해로운 종교로서 폭력을 조장하고 여성들을 억압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내 연구에 등장하는 취재 여성들에게 히잡은 억압도 테러도 아닌 ‘믿음’, ‘검소함’, ‘여성의 이슬람 정체성’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 및 순종을 상징하는 무슬림으로서의 증표이다. 그들은 히잡 착용을 즐겼으며 히잡을 착용하면 기분이 차분해진다고 말했다. 그들은 히잡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다. 히잡이 남녀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주고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느낌이 들게 하며, 히잡을 착용하는 사회에서는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경험을 지식의 기본으로 하는 페미니스트적 방법론이 의미가 있다면, 이와 같은 히잡의 의미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여성들은 그릇된 신념을 가진다는 모멸과 멸시를 받지 말아야 한다.



세 / 번 / 짜 / 장

히잡의 다양한 의미

가리는 이유

히잡의 의미 : 서구 미디어의 관점



히잡의 다양한 의미

히잡 착용의 사회적 복잡성은 서구의 보편적인 믿음인 “히잡(히잡 종류가 하나인 양)은 여성 무슬림들의 억압을 상징한다”라는 시선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책에서 나의 도전과제는 서구 세계에서 통용되는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에 대한 깊은 오해, 즉 그들이 강요와 강압 때문에 히잡을 착용하며 이는 ‘억압의 증표’라는 주장을 타파하는 것이다.

이번 장은 히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에 중점을 두고 독자들로 하여금 히잡에 대한 단 하나의 해석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서양에서 히잡을 쓰는 여성들에 대해 존재하는 단 한 가지의 해석, 즉 그들은 억압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시선에서 비롯된 불의를 조명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퀘벡에서 여학생들이 히잡을 이유로 퇴학당하고 여성 무슬림들은 차별과 희롱 등에 의해 고통받는다).

다른 나라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분석한다. 이는 개인과 상황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히잡의 여러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다. 히잡 착용에 대한 주요 저서 중 일곱 개의 핵심 주제를 종합해보면 각 상황에 따른 여성들의 히잡 착용이 가지는 지위, 개인의 정체성 발산, 관습 및 법 제도와 같은 다양한 상황적 의미를 가진다. 자연히 위에 언급된 테마 중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한 여성에게 한 가지 이상의 주제가 중첩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어지는 문단들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주제를 소개하고 현대 서구 미디어가 히잡에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본다. 이 과정은 서구 미디어에서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히잡에 대한 이미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정적이며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는 관계가 없음을 시사한다.

가리는 이유

(1) 혁명시위 1950년대 알제리 독립혁명과 1970년대 이란 독립투쟁 당시 히잡이나 베일을 착용하지 않던 여성들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히잡/차도르를 착용하였다. 히잡 착용은 제국주의 및 식민 지배에 대한 반대 의사와 서구의 의지에 공감하는 엘리트정권 및 그 정권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감을 상징하였다.

(2) 정치적 시위 여성들은 엘리트주의 서구화 정책들과 서양 신제국주의 지배에 대항하는 정치적 시위의 하나로써 히잡을 착용하였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 정책 및 서구에 의한 상업적,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 침략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다.

(3) 종교적 이유 서구화와 세속화에 대항하는 정치적 시위의 한 부분을 차지한 움직임은 이슬람이 서구화와 세속화를 대신하여 긍정적 대안 정치, 사회 및 경제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이슬람 드레스 코드’ 표방 움직임의 일부로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였다.

(3.1) 사회개혁 서구화와 세속화에 대항하고 이슬람을 대안으로 수용하는 태도에서 더 나아가 히잡은 착용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발전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회개혁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히잡은 사회계급의 완화를 대표하게 되었다. 윌리엄스(Williams)는 이집트 여성들이 자신이 히잡을 착용하는 이유로 사회를 치유하고 분열로부터 막기 위함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4) 공적 위치에 대한 접근 최근 히잡을 착용하기 시작한 여성들이 모두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히잡 착용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히잡 착용을 시작한 여성들(일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은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공적인 위치로서의 진출을 촉진하여 구직 활동, 지위확보 및 남성 우월주의에 의한 피해 감소 등에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5) 개인 정체성의 표현 특히, 서양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들 사이에서 히잡 착용의 이유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아시아계 영국 2세대인 나디아의 경우에도 열여섯 살에 처음 히잡을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고 정체성의 증표와 같은 역할 및 나의 정체성에 종교라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신호가 되어준다”라고 했다.

(6) 관습 다수의 무슬림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의 관습을 존중하는 의미로 히잡을 착용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교육학 학사를 취득한 35세의 사우디 출신 교사는 “나는 신념에 의해 베일을 착용한다”라고 말했다. “그 신념은 어떠한 배경과 믿음에 기초해 형성된 것이냐?”라는 물음에 그녀는 “나의 전통과 관습에 대한 애착이 있다. 베일을 쓰는 것은 사우디 여성으로서 정체성의 일부에 해당한다. 베일을 착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우디 문화의 규범과 가치를 따르고 행동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렇기에 나의 딸에게도 베일을 착용하라고 가르칠 것이다”라고 답했다

(7) 국가의 법적 요구 히잡 착용 및 가리는 행위는 이란에서 1979년 혁명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998년 탈레반 정권진출 이후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히잡의 의미 : 서구 미디어의 관점

히잡을 착용하는 것의 동기와 의미에 대한 사회적 복잡성과 보편적인 서구 미디어에서 비치는 히잡 착용의 동기 및 의미 간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구 미디어 관점에서의 히잡은 보통 그리고 대부분 억압의 상징 및 테러, 폭력, 잔혹성, 퇴보 등의 이슬람 관련 공포를 상징한다. 이러한 논리는 이미 형성된 이미지에 히잡이라는 요소를 끼워 맞추는 것이다.

히잡이 동양을 대변하였던 식민통치시대와 같이 1990년대에 “히잡”이라는 단어는 이슬람 근본주의 공포의 화신이 되었다. 신문기사들은 앞다투어 “히잡에 가려진 이슬람의 위협”, “신앙의 행위인가, 히잡에 쌓인 사회에 대한 위협인가?”, “장관의 발표와 같이 무슬림 히잡과 프랑스 학교와의 조화에 대한 위협”, “새로운 법: 히잡을 착용하고 살아남기”, “히잡에 갇힌 여성들”과 같은 헤드라인을 쏟아낸다.

이렇듯 히잡은 이슬람에서 여성들의 열등함과 연결되고는 하였다. 히잡 착용이 “여성 억압에 대한 드러난 징표”로 간주되며 히잡 착용을 원치 않는 여성들에게 협박

및 폭력행사를 이용해 강요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무슬림 국가에서 많은 여성은 히잡을 자유의사에 의해 신념을 가지고 착용한다. 스크로진(Scroggin), 굿윈(Goodwin), 브룩스(Brooks)와 같은 서양 작가들의 글 속에서 이러한 여성들은 바보 같고 무지하며 독특하거나, 최악의 경우 이슬람주의 이념의 결정체로서 남성들과 다를 것 없이 반 여성 이념을 대변하는 주범으로 몰린다. 히잡 착용에 관한 학술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청소년들은 굿윈(Goodwin)의 연구에서 “극단주의”에 쉽게 현혹되는 어리고 사회 및 경제적 유혹에 약한 이미지로 그려진다.

이들 대부분은 물론 위에 언급된 학자들의 인터뷰에서 빚겨 갔다. 브룩스(Brooks)의 손에 탄생한 이미지 속의 그들은 나라를 퇴보하게 만드는 암흑 같은 미래의 전조들이다. 학술연구 그 어느 곳에서도 맥클레오드(Mac'leod)에 의해 관찰된 카이로 서민층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히잡 착용 운동이 이슬람 근본주의 움직임과 관계가 없다는 관점의 뉘앙스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없다. 주흐르(Zuhur)와 러그(Rugh)의 사회경제적 관점이 아닌 신앙심과 경건함에 중점을 둔 시각이나 브레너(Brenner) 눈에 비친 인도네시아 자바 여성들의 선진적이며 이성적이고 현대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다시 잡기와 같은 시각은 반영되지 않았다.



네 / 번 / 째 / 장

메르니시와 히잡에 대한 담론

메르니시와 방법론

꾸란과 순나(선지자의 언행록)에 등장하는 여성과 성

결론



메르니시와 히잡에 대한 담론

모로코 출신 페미니스트 파티마 메르니시(Fatimah Mernissi)의 두 저작, “베일 저편에”와 “베일과 남성 엘리트”는 서구에서의 히잡 의미에 대한 논의 자료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두 책에서 메르니시는 히잡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부당한 권력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책에서 히잡이 강압적이라는 편견을 깨고자 하기에 메르니시의 주장들에 대한 비판적인 반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메르니시와 방법론

파티마 메르니시(Fatimah Mernissi)가 모로코에서 자라면서 경험한 듯한 개인적인 트라우마들이 그녀의 작품 중심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메르니시 자서전에 적힌 일화에는 그녀와 히잡 관계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홉 살이 채 되지 않은 메르니시와 그녀 사촌들은 “어두운 머리색과 검은 눈동자 색을 싫어하는 친 히틀러 세력이 어두운 머리색을 가진 인종을 볼 때마다 그 지역에 폭격을 가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 머리색을 염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메르니시는 어머니의 히잡을 두르기 시작했지만 이내 화난 어머니에 의해 히잡은 찢겨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시 한 번 머리를 가리기만 하거라!”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히잡에 대항하여 싸우는 중인데 네가 히잡을

쓰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니? 히틀러의 세력이 너를 쫓아오더라도 절대로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로 대항해야 한다”고 그녀 어머니는 가르쳤다. “머리를 가리고 숨는 것은 그저 여성들을 쉬운 공격대상으로 만들 뿐이야. 너희 할머니와 엄마는 이미 머리 가리는 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단다. 나는 내 딸들이 얼굴을 깨끗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행성에서 별들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과연 히잡 착용에 대해 확실한 또는 부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확립할 수 있었을까? 과연 어린 소녀에게 퇴보하는 행위나 반민족적으로 보이지 않고 히잡을 착용하기로 결정할 자유가 있었을까? 메르니시는 분명 이러한 기억들로 인한 트라우마에 아직까지 시달리고 있으며 그녀의 목적은 이러한 고통에 대한 원인 규명과 치유에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히잡이라는 시스템을 과연 누가 증오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녀와 같은 계층의 문맹 여성들이 외출할 때 니깅을 착용하는 것은 그녀의 머릿속에선 히잡 및 니깅은 여성들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라는 사실이 당연시되어 보였다. 문제는 메르니시가 모로코의 제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경험한 히잡 착용에 대한 경험적 시각을 보편적인 히잡 착용의 경험과 히잡을 착용하는 실제 이유와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메르니시는 히잡 착용에 관한 다양한 이슬람적 행위의 존재 및 다양한 이슬람적 의미의 히잡에 관한 담론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녀는 20세기 모로코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체계를 7세기 아랍의 시스템과 동일시하여 접근하는 역사적으로 어긋나는 접근법을 택했다.

그녀는 20세기 모로코에서 벌어진 삶들이 선지자 무함마드가 본 긍정적 이슬람의 이상적 상태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녀는 모로코에서 벌어진 일들을 무슬림 세계 전체에서 벌어진 일들과 동일시하며 무슬림 세계에서 의 히잡 의미에 대해 논한다. 이는 마치 현재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의 시스템이 태초 7세기에 발생한 무슬림 사회와 동일시하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내가 메르니시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점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1) 공간과 시대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이슬람에 대한 의견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역사적이지 못한 종교적 상징으로 접근, 그리고 (2) 히잡 착용에 관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담론들을 인정하지 않은 좁은 시각 및 접근이다.

히잡이 여성에 대한 이슬람의 억압을 상징한다는 부정적인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연 이슬람이 메르니시가 말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적대적인 사회를 요구하는

지? 그렇지가 않다면 여성들에게 우호적인 대안이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번 장에서 나는 메르니시의 여성에 대한 이슬람의 시선에 관한 주장들이 꾸란과 하디스에 대한 모순점이있음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메르니시에 대한 나의 주장은 무슬림 사회가 여성에 대한 강압적인 행동이나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의 주장은 일반적인 이슬람 및 규범적인 이슬람에 대한 것이다. 꾸란 비전에 대한 해석 중 여성에게 우호적이라는 해석은 메르니시의 관점과 여타 여성들에게 꾸란이 적대적이라는 해석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

꾸란과 순나(선지자의 언행록)에 등장하는 여성과 성

히잡 착용에 대한 메르니시의 주장은 ‘이슬람이 여성의 성을 위협하다고 간주하며 통제되어야 한다고 바라

본다’는 그녀 결론에 기인한다. 그녀는 나아가 이슬람은 ‘여성성’이 성스러운 영역에 반한다거나 부부 사이 사랑을 금기시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여성은 남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위협이 되므로 가려져야 하며 무슬림 공동체로부터 격리 및 제외되어야 한다.”

꾸란과 순나를 자세히 읽어본다면 이와 같은 주장들을 펼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윈터(Winter)가 말했듯이 이슬람은 “성에 대하여는 관대한 태도”를 견지한다. 이런 태도는 이맘 나와위(Imam Nawawi)의 말로 대변된다. 그는 “성적 욕구를 제외한 모든 욕구는 마음을 경직시킨다”라고 말했다. 꾸란에 여성을 위협한 성적 존재라고 언급한 구절도 없다. 오히려 꾸란은 여성과 남성은 본질적으로 신성한 숨을 부여받은 동등한 존재이며 같은 영혼에서부터 나왔다는 개념을 보인다. (따라서 이슬람이 어떻게 신성에 반하는 여성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는가?)

꾸란은 쌍방 의지에 의한 결혼으로 인한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 많은 구절로 넘쳐난다. 메르니시가 이 구절들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점으로 남는다. (예를 들면 꾸란 30장 21절) 부부간의 사랑과 이해, 연민과 조화에 대한 꾸란적 그림은 메르니시의 관점과는 근본적

으로 다르다. 그녀는 무슬림 질서는 남녀 간 특히, 부부 간의 사랑을 문명에 대한 치명적인 적으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강조하자면 이슬람에는 몸과 육체적 욕구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여성은 인간의 죄악과 타락에 가담하지만, 에덴동산에서의 퇴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대상이 아니다. 이 행동에 대한 원죄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이슬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덕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 정황이다. 즉, 결혼으로 인해 성욕을 채우는 것은 장려하고 상을 줄 만한 일이지만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욕을 채우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벌 받아 마땅하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신앙의 모습이며, 그렇기에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여성 간 적대감을 일으키기보단 적법한 관계이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남녀에게 가져다준다. 그렇기에 규범적으로 볼 때 히잡은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적대적인 신앙 상징이 아니다.

| 결론

히잡 착용이 여성들을 신앙생활 및 공적인 위치에서 배제한다는 메르니시의 주장은 세 번째 장에 나온 여성들의 행동과 두 번째 장에 등장하는 인터뷰 여성들에 의해 반박되었다.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들을 수동적인 피해자들로 몰아세움으로써 메르니시는 식민통치 시절의 동양적인 시각을 되새긴다. 그녀의 관점은 지극히 지엽적인 시각이며 히잡 착용에 대한 사회적 복합성을 무시한다.

이슬람에서 기본적인 여성성과 신이 요구하는 여성성 사이에 확실한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메르니시의 추측이 틀렸다면 히잡은 더 나가 다른 형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 / 섯 / 번 / 째 / 장

히잡에 대한 대안이론

- A. 히잡과 자유화
- B. 히잡과 남성의 시선
- C. 히잡과 여성다움
- D. 히잡, 성, 그리고 본질주의
- E. 히잡과 선택
- F. 히잡과 종교성
- G. 결론

결론



히잡에 대한 대안이론

이 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 배경이 히잡에 붙여진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번 장에서는 21세기 소비적 자본주의 문화에서 히잡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이론을 피력하고자 한다. 자본주의가 육체와 물질에 집중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함으로써 강해지고 자유로워진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는 자

본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의 시선과 자본주의 체제가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 등에 관한 페미니스트 성향의 주장들을 분석하여 히잡이 여성들에게 두 가지 시선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아래 C, D, E 소주제에서는 각각 히잡에 대한 보편적인 비판들로서 여성성을 파괴하는 의상, 제한적 선택이라는 주장에 반박할 것이다.

마지막 소주제에서는 히잡이 히잡을 선호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현대 물질주의의 악영향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 신앙적 전통으로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 히잡과 자유화 B. 히잡과 남성의 시선

주류 언론사에 글을 쓰는 나히드 무스타파(Naheed Mustapha)와 술타나 유습알리(Sultana Yusufali)는 히잡을 서양 대중 소비문화의 억압적인 요소들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표현한다. 표현과정에서 이들은 두 종류의 페미니스트적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로 자본주의 문화 내에서 여성 육체에 대한 물질화 및 상품화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적 미의 기준에 대한 광고가 미치는 악영향이다.

오르바흐(Orbach), 보르도(Bordo), 울프(Wolf), 우셔(Ussher), 맥킨넨(MacKinnon), 워르킨(Dworkin) 을 포함한 다수 페미니스트가 서양문화에서 여성의 이미지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작가들은 여성 육체의 상품화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여성의 육체가 광고, 포르노, 예술, 영화 등에서도 소비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들의 공통된 주요 논의 주제는 여성의 육체가 마치 남성의 시선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아름다워야 하며 그들의 육체는 성적 흥분의 대상이다. (특히, 여성의 나체를 표현한) 다양한 예술과 포르노 등에서 여성들은 자주 수동적이고 연약하며 남성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소지품으로 그려진다. 사진과 영화 등에서는 '취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지만, 다수의 페미니스트는 이러한 시각적 효과에 기반한 여성의 물질화가 실생활에서 여성들을 남성의 성적 필요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여성의 육체를 물질화시키는 현상은 단순히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현상은 사진과 그림이 등장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특히, 광고 분야에는 여성이 비키니를 입은 모습, 시리얼박스 밖으로 튀어나온 여성의 다리 등 이러한 상품화 현상이 공공

연히 나타난다. 판매상품과 여성의 성적 상품화된 육체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희박하다. 여성의 육체는 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여성의 육체를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남성들을 자극하고 여성의 육체를 물건 및 상품으로 상기시킨다. 이러한 상품화는 여성들을 비인격화시키고 물건으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바꾸고 순화시키는 것은 페미니즘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무스타파와 유습알리는 히잡을 이러한 물질화 및 상품화의 뒷에서부터 여성들의 인격을 되찾아줄 방법이라고 본다. 무스타파와 유습알리는 히잡이 여성들을 비물질화하여 남성의 시선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여성들을 ‘미의 전쟁’에서 탈출시켜줌으로서 자유를 선사한다고 주장한다. ‘미의 전쟁’이란 여성들이 주위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들’의 미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들을 가꾸어가는 행동을 가리킨다. 길고 펴퍼짐한 의상을 입고 히잡으로 머리를 가림으로써 여성들은 급변하는 시계추와 같은 패션산업 및 여성들을 착취하는 여타 산업들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미의 기준에 대한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다른 상황에서는 억압적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는 히잡이라는 이슬람 고유의 전통을 자유의 상징으로 삼았다. 히잡을 선택함으로써 이들은 ‘패션 감각이 있고 날씬하며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다수(서구) 문화의 여성에 대한 메시지에 대항하여 무슬림 정체성 및 소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의 전통을 통해 히잡이 잘못된 의식이라는 주장에 대항한다.

C. 히잡과 여성다움

여성들의 육체를 가지고 어떤 것이 맞고 다르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서구문화는 “가리는 것”이 여성성과 아름다움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칙칙해 보이는 의상들로 가려진 여성 무슬림들은 마치 그들의 여성성과 매력이 박탈당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번 소주제에서 나는 히잡이 여성성과 성적 요소를 억압한다는 주장에 대항하여 네 가지의 반론을 펼칠 것이다.

애초에 여성들은 하루 24시간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다. 언뜻 보면 온종일 히잡을 착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히잡은 공적, 사적 장소를 구별하는 의복이 아니다. 히잡의 착용은 낯선 남성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로 착용과 미착용이 나뉜다. 여성들이 다른 여성이나 가족 관계의 남성들과 있을 때는 히잡을 쓰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족을 제외한 낯선 남성들의 시선으로부

터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밖에서도 히잡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

둘째로 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남편 앞에서는 아름답게 치장하고 자신들의 외모를 뽐내도록 권장된다.

셋째로 대부분의 사교 행사는 남녀가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없는 환경에 훨씬 더 자주 노출된다. 이런 사교 행사들에서 여성들은 화장을 질게 하고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을 즐긴다. 이중 가장 화려한 행사 중 하나는 결혼을 앞둔 신부를 위한 파티이며, 여성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화려한 옷을 입는다. 이러한 행사들에서 여성들은 서로의 손에 헤나를 그려주며 시간을 보내곤 한다. 춤과 노래는 빠질 수 없다. 나는 중년의 여성들이 춤추고 손뼉 치며 엉덩이를 흔들고 쑥스러워하는 신부를 재촉하고 독려하여 더 화려하게 몸과 엉덩이를 흔들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네 번째로는 히잡과 다른 문화의 여성들이 남성의 시선에 대비하여 취하는 행동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머리를 식발하기도 한다.

D. 히잡, 성, 그리고 본질주의

자유주의와 신구조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인간의 행동과 욕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한다. 히잡과 같이 전통적인 남성, 여성 차이를 강조하는 요소들은 특히나 사회적 구조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꾸란 자체도 히잡 착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남녀 의복 차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꾸란은 짧은 두 개의 설명을 제공하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꾸란 24장 31절과 같은 구절을 보면 여성들로 하여금 “베일로 가슴 부위를 가리도록”하고 있고, 33장 59절에서는 외출 시 겹옷으로 가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꾸란이 대중적인 자리에서 남녀 사이에 관계 형성이 여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겹옷으로 몸을 가리는 것이 이러한 영향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믿는 듯 보인다.

꾸란에 어떠한 겹옷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답이 없지만 24장 30절에 남녀 모두 시선을 내리고 겸손함을 보호하라는 구절이 있다. 꾸란에서 남자들의 시선에 대한 현상을 이미 분석하여 남성의 성적 시선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본질주의가 ‘남/여/우성/열성’으로서 수 세기 동안 사용된 과거 방식대로 여성의 삶과 교육 및 참정권 등과 같

은 여성의 기본권을 거부하는 것을 간직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 하지만, 꾸란에서는 이러한 남녀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실제, 남녀평등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꾸란 4장 1절. 인류여! 한 몸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배우자를 갖게 주님을 숭배하라.) 꾸란은 여성이 대중적인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위험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여성이 가리는 것에 대한 논쟁은 남녀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언급보다 더 전략적이라 할 수 있겠다. 요컨대, 나이 든 여성은 가리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꾸란 24장 60절).

자유/포스트모더니즘에서 사회화가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감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꾸란에서는 인간 특성이 지속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생물적 결정론을 내포할 필요가 없으며, XY 염색체인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대부분 남성은 여성을 잘 대우한다. 오히려, 사회화가 여성을 열등하게 인식하는 남성들을 양산하고 이러한 태도를 확산시킨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히잡이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사회가 가장 안팎은 물론 특히, 대중적 공간에서 남녀의 성적 정체성을 억제한 것이다.

E. 히잡과 선택

히잡으로 회귀하려는 운동에 대해 서구 학자들은 여성들의 ‘히잡 착용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히잡 착용을 결정하도록 교활하게 세뇌되거나 강요되고 있다는 선입관이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은 ‘만약 히잡을 착용한다면, 히잡 착용이 좋은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성으로서의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히잡 착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에 히잡 착용 결정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내가 무슬림이 되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동일하다.

선택은 문화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문화와 이를 선택하는 개인 능력 간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다. 내가 세 번째 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심지어 상당한 자유가 존재하는 서구에서도 선택에는 범위가 있다.

대부분 서구사회에서도 여성이 대중 앞에서는 가슴을 가리도록 한다. (물론 누드 해변 등 특정한 장소는 제외하고 말이다.) 어느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가슴 노출을 제재하는 문화에 의해 여성들이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부분 여성은 이러한 제재를 수용하고 옷을

입을 때 가슴을 가리는 것을 자신들이 선택한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것은 히잡 착용과 같은 것이다.

즉, 대부분의 무슬림 사회에서 히잡 착용에 대한 선택을 문화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비록, 터키 같은 일부 무슬림 사회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역자 주 : 터키에서도 군정부가 금지했던 히잡 착용이 오늘날에 허용되었다.) 물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진정한 선택을 허용하는 무슬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란 또는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처럼 여성들의 의복을 법적으로 규정하거나 불안정한 무슬림 사회에서 히잡이 충성의 표식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의복을 폭력적으로 규정하는 사회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수용될 수 없다. 다시 얘기하건대, 히잡 착용에 대한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의 히잡 착용에 대한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다.

F. 히잡과 종교성

종교적 제재와 두 번째 장에서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성 무슬림들이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히잡을 착용했다는 것 때문에, 히잡은 이슬람 교리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다른 종교들처럼 무슬림

교리도 사후 세계를 강조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것들에 유혹받지 말 것을 경고한다. 꾸란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판의 날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각 영혼은 선행과 악행을 평가받게 된다. 신앙심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상기되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하며 복잡 또한 신앙심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경건한 행위로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힘을 부여해줄지 몰라도 이는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히 무슬림의 하디스에서 “하나님은 너의 외모나 재산을 보지 않는다. 네 마음과 행동을 살펴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no. 2564).

히잡을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했을 때, 자본주의의 소비중심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인간 육체의 완벽성에 대해 언급한 꾸란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에서 식이장애를 겪고 외모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신이 모든 것, 심지어 개인의 체형까지도 창조한다는 것을 불신하는 문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신체는 문화적인 관습과 형성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신체’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수술을 감행할 의지 없이 우리의 몸을 대폭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만약 개인이 건강한 상태에 있다면, 몸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

지 않을 것이다. 꾸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고 기뻐할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머니 자궁에서 그대를 만들었다.” (꾸란 3장 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상 상태로 만드셨노라.” (꾸란 95장 4절).

선지자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적당히 먹는 가운데 운동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에 대항하는 역할을 한다. 히잡을 받아들임으로써 여성 무슬림들은 물질주의의 부패에 대항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주는 뿌리 깊은 신앙 전통에 받을 들이게 된다.

G. 결론

이번 장에서 전개된 주장은 히잡이 여성 자존심과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21세기 소비자 자본주의 문화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히잡은 또한 종교적으로 승인된 의복이고 히잡이 내재한 종교와 연관성이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치가 외모가 아닌 신실한 행위에서 비롯됨을 상기시켜 자존감을 높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히잡은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

는 종교의 상징이다.

이는 히잡이 이슬람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여성의 성적 특성만 중요시해 ‘여성’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의견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 결론

내 책은 왜 개개인의 선을 추구하는 방식에 중립적이어야 할 세속의 자유주의 사회가 내가 무슬림이 되고 히잡을 착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내 탐구 여정은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히잡을 받아들였던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히잡을 없앴다가 다시 몇몇 여성 무슬림들이 착용하기 시작한 오늘날까지에 이르렀다. 나는 토론토에 살며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히잡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21세기 자본

주의 문화에서 히잡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했다.

히잡은 남성과 여성 복장에 관한 철학이고, 남성과 여성 관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히잡은 다양한 범위로서 여성의 몸을 감싸는 천 조각이고, 서구에서는 적대감의 대상이며, 무슬림 세계에서도 격렬한 투쟁 원인이 되고 있다.

터키와 튀니지에서는 “현대성”을 명분으로 히잡을 폐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터키에서 이 법은 다시 폐지되었다.) 이 현대성이라는 것은 이슬람을 퇴보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미개하여 여성에게 억압적이라고 여기는 동양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히잡을 억압적인 것으로 보는 일반적 서구인들의 견해와 히잡을 없애려는 무슬림 세계의 시도가 일맥상통하게 된다.

오늘날까지 여성주의 패러다임은 히잡 착용의 긍정적인 면을 간과해 왔고, 전 세계에 널리 퍼진 히잡 착용에 대한 다양성을 포착하려 하지도 않았다. 퇴폐적인 동양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의 담론은 여성 무슬림들을 해치고, 히잡을 착용한 여성들을 말 못하는 바보들, 자기 자신의 의견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서양의 페미니스트들은 그들 문화에서 여성들이 받는 억압은 잊은 채, 오로지 여성 무슬림들만이 전 세계에

서 억압에 고통받는 유일한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히잡은 억압적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지속되는 것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은 간과될 수 없다. 비록 그 패권이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고 특정한 외교정책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히잡에 반대하는 담론은 서구 패권주의와 관련이 있다.

일부는 당연히 항의할 것이다. 대부분의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들은 고립되어 왔고 지금도 고립되어 있다. 그들은 히잡으로 가려야만 했다. 히잡은 여성의 잠재력, 교육과 직업, 참정권을 제한시키는 것 중 일부였다. 메르니시처럼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히잡이 사라지는 것을 축하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다시 히잡을 착용하려는 움직임은 서구의 억압에 대한 고정관념과 몇몇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적 관행에 대한 급진적인 도전이다. 꾸란과 순나(선지자의 언행록)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은 그 자체에 많은 힘이 내재되어 있다.

나를 포함해서 꾸란과 순나, 선지자, 그리고 첫 번째 공동체를 여성과 남성의 평등과 정의를 구현한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문화적 풍조로 인해 지난 1,400년간의 삶의 방식이 왜곡되어 왔다. 이러한 무슬림들, 남성과 여성들은 히잡이 고립과 같은 과거의 억압적인 전통과 단절되어야 하며, 그러한 억압들이 여성들이 공동

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 노동, 정치적 개입과 히잡을 요구하고 있다.

히잡에 대한 이러한 의견 차이가 오늘날 무슬림 공동체에서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의견 차이는 무슬림 초기에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사람들은 히잡 착용 여부로 무슬림 여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등 히잡 착용에 과감하게 집착하고는 했다.

잊혀지고 있는 사실은 사하다(하나님 외에는 숭배할 대상이 없다는 선언과 믿음, 그리고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가 개인을 이슬람 신자로 만들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예언적인 전통은 규칙을 잘 지키는 여성들이 이번 생에서 논란거리가 되었을 때, 다음 생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우리의 행동 범위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여성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 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다. 그러므로 “보수” 세력은 거만함을 경계하고 히잡 착용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 히잡이나 니캅 착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진보” 세력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양심의 자유는 양측에 의해 지켜져야만

한다.

내가 처음 연구를 진행해 온 이후로 무슬림들 사이에서 히잡이 종교적인 것이 아닌 문화적 의복이라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나는 개종하기로 결심하고 난 뒤부터 이 논의에 대해 조사해 보았고, 이 논의는 불충분한 증거와 일관성 없는 논리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나는 “히잡은 종교적 요구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서구에서는 분명히 열띤 지지를 받을 것이기에 히잡 착용을 원하는 여성 무슬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소외감이 생기게 될까 봐 걱정된다.

히잡 착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서구 주류 문화 담론과 진보적인 무슬림 담론에 의해 외면받고 있다. 이 책에서 인터뷰에 응한 모든 여성이 히잡을 착용했거나 착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진정으로 원해서 히잡을 착용해 왔다. 이 책의 전체적인 틀은 히잡이 종교적 의복이고 억압적인 것이 아니며, 여성 무슬림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종교의 일부라는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라건대, 이 책이 히잡 착용 논의에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내 책은 나처럼 이슬람에서 평화와 즐거움을 찾고 히잡이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히잡에 관

한 또 다른 이야기를 신고자 했다.

내 책은 다른 의견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려는 시도이다.

또한, 히잡 착용을 원하는 여성 무슬림들과 그들 의견이 존중받고 호의를 바탕으로 히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부탁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여전히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남아있을 수 있어야 한다.



역 / 자 / 의 / 말

참 / 고 / 문 / 헌



르네상스 이래 계몽기를 거치며 유럽인은 교회와 군주에 의해 자행된 과도한 속박과 탄압에 대한 반발로서 그들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추구했으나 반발에 의한 자유로움은 지나친 방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명분과 지위를 잃은 교회와 그 바탕에서 태어난 유럽은 이를 바로잡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명분이 없는 물질적 세속주의를 합리화하려는 방편으로써, 매우 공격적으로 다른 사상들을 비판해 왔다.

왜곡된 유럽 사상을 마치 우리 것인 양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 잣대에 종속되어 사회와 세계를 평가하는 현재의 흐름을 보며 조그만 목소리라도 내려는 마음에서 싹람누리는 국제 이슬람 사상 연구소의 간략본 시리즈에 기고된 캐서린 벌록 박사의 〈히잡의 가치〉를 소개하기로 하고 이 주제로 국내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 맞춰서 출판한다.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삶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에 이른 우리 이웃에게 드리는 소박하고 작은 정성이라 여겨주시기 바란다.

싹람누리는 ‘평화’라는 뜻의 아랍어 ‘싹람’과 ‘세상’이라는 뜻의 우리말 ‘누리’의 복합어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공부하고 세상에 참 평화를 알리고자 하는 전 세계 무슬림 청년 학생 모임이다. 각종 이슬람 학술연구 및 세미나를 이끌며 국내 정기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싹람누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7월 서울
싹람누리

1 The Complete Letters of Lady Mary Wortley Montagu, quoted in Leila Ahmed, Women and Gender in Islam: Historical Roots of a Modern Deb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150.

2 Orientalism became a field of knowledge, or paradigm, for understanding the Middle East and Islam that pretended to objectivity (impartiality), but that was actually based on the guiding assumption of inherent Oriental inferiority.

Edward Said, Orientalism (1979, 2nd Ed., New York: Vintage Books, 1994), p.209.

3 Ahmed, Women and Gender in Islam, p.128. 4 Ibid., pp.129 – 130.

5 Ibid., p.145.

6 Ibid., p.129.

7 Timothy Mitchell, *Colonising Egypt* (Berkeley: Uni. of California Press, 1988), pp. 12 – 13, *passim*.

8 Ibid., pp.19 – 20.

9 Ahmed, *Women and Gender in Islam*, p.104.

10 The Quebec issue followed on from French expulsions of girls in hijab in 1989. Naturally there are connections between French and Quebec culture.

11 Canadian Broadcasting Commission, *Prime Time News*, July, 1995.

12 Jeffery Simpson, "The Current Objections to Muslim Clothing are Simply Wrongheaded," *Globe and Mail* (Toronto, Canada), December 28, 1994, p.A16.

13 Mona LeBlanc, *Letters to the Editor*, *Globe and Mail*, Wednesday, January 4, 1995.

14 I say "other people" because most of the interviewees, even though they observed the five pillars of Islam, did not consider themselves "religious." They felt they would have to do more prayers, or read more Qur'an, to be truly religious.

15 Yvonne Yazbeck Haddad, "Arab Muslims and Islamic Institutions in America: Adaptation and Reform," in

Arabs in the New World: Studies on Arab–American Communities, eds. Sameer Y. Abraham and Nabeel Abraham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Centre for Urban Studies, 1983), p.75.

16 Azza M. Karam, *Women, Islamisms and the State: Contemporary Feminisms in Egypt* (London: Macmillan, 1998), p.133.

17 *Ibid.*, p.139.

18 For Algeria, see Frantz Fanon, *A Dying Colonialism*. Trans. Haakon Chevalier (New York: Grove Press, 1967). French edition, 1959, pp.61–62, *passim*. For Iran, see Azar Tabari, “Islam and the Struggle for Emancipation of Iranian Women,” in *In the Shadow of Islam: The Women’s Movement in Iran*, eds. Azar Tabari and Nahid Yeganeh (London: Zed Press, 1982), p.13.

19 Sherifa Zuhur, *Revealing Reveiling: Islamist Gender Ideology in Contemporary Egypt*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p.108. Notes

20 John Williams, “A Return to the Veil in Egypt,” *Middle East Review*, 11, 3, (1979), p.50.

21 Zuhur, *Revealing Reveiling*, p.2. Zuhur found this ideal contradicted by the Yves St. Laurent line of headscarves available for purchase. See also Leila Hessini, “Wearing

the Hijab in Contemporary Morocco: Choice and Identity," in *Reconstructing Gender in the Middle East: Tradition, Identity, and Power*, eds. Fatma Müge Göçek and Shiva Balagh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50.

22 Williams, "A Return to the Veil," p.54.

23 Homa Hoodfar, "Return to the Veil: Personal Strategy and Public Participation in Egypt," in *Working Wom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abour and Gender Relations*, eds. Nanette Redcliff and M. Thea Sinclair (London: Routledge, 1991), pp.110–111; Arlene Elowe Macleod, *Accommodating Protest: Working Women and the New Veiling in Cairo*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pp.114, 121.

24 Helen Watson, "Women and the Veil: Personal Responses to Global Process," in *Islam, Globalization and Postmodernity*, eds. Akbar S. Ahmed and Hastings Donnan (London: Routledge, 1994), p.148. Nadia is the first woman in the family to have a post-secondary education. She is now studying medicine at University.

25 M. AlMunajjed, *Women in Saudi Arabia Toda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p.47.

26 *New Statesman*, 27 March 1992, cover page.

- 27 The Atlanta Journal/The Atlanta Constitution, June 28, 1992, Section P.
- 28 L'Express, (Quebec), November 17, 1994, cover page.
- 29 Le Nouvel Observateur, September 28, 1994.
- 30 Toronto Star, May 14, 1996, F5.
- 31 Vancouver Sun, September 15, 1994, A18.
- 32 Montreal Gazette, April 11, 1994, B3.
- 33 Toronto Star, December 15, 1996, F4.
- 34 Deborah Scroggins, "Women of the Veil: Islamic Militants Pushing Women Back to an Age of Official Servitude," The Atlanta Journal/The Atlanta Constitution, Sunday, June 28, 1992, p.P3.
- 35 Jan Goodwin, Price of Honor: Muslim Women Lift the Veil of Silence on the Islamic World, (New York: Plume, 1994), p.262.
- 36 Ibid., pp.55, 78-79, 81, 98, 101, 107-109, 293, 300; Scroggins, "Women of the Veil," p.P3
- 37 Goodwin, Price of Honor, pp.112, 161, 186-187, 217, 247, 342. Goodwin presents some women who cover as not fundamentalists and fearing fundamentalism, p.85; Scroggins, "Women of the Veil," p.P2. Geraldine Brooks, Nine Parts of Desire: The Hidden World of Islamic Women, (N.Y.: Doubleday, 1995), p.8.

- 38 Goodwin, *Price of Honor*, pp.137, 175.
- 39 Andrea B. Rugh, *Reveal and Conceal: Dress in Contemporary Egypt* (Syracus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86).
- 40 S. Brenner, "'Reconstructing Self and Society: Javanese Muslim Women and the Veil,'" *American Ethnologist*, 23, 4, (1996).
- 41 Fatima Mernissi, *Beyond the Veil: Male–Female Dynamics in Modern Muslim Society* (Revised ed,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and *The Veil and the Male Elite: A Feminist Interpretation of Women's Rights in Islam*, Trans. Mary Jo Lakeland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91).
- 42 Fatima Mernissi, *Dreams of Trespass: Tales of a Harem Girlhood*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94), p.100.
- 43 *Ibid.*
- 44 Mernissi, *Beyond the Veil*, p.82.
- 45 *Ibid.*
- 46 T.J. Winter, "'Desire and Decency in the Islamic Tradition,'" *Islamica* (United Kingdom), 1, 4, (January 1994), pp.11–12.
- 47 Mernissi, *Beyond the Veil*, p.107.

- 48 Naheed Mustapha, "My Body is my Own Business,"
Globe and Mail, Facts and Arguments, Tuesday, June
29, 1993; Yusufali: "My Body is My Own Business," The
Toronto Star, Tuesday, February 17, 1998, C:1.
- 49 Susie Orbach, *Fat is a Feminist Issue: A Self-Help Guide
for Compulsive Eaters* (New York: Berkeley Books, 1979);
Susan Bordo, *Unbearable Weight: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Naomi Wolf, *The Beauty Myth:
How Images of Beauty are Used Against Women*
(1991, 2nd Ed, New York: Anchor, 1992); Jane Ussher,
*Fantasies of Femininity: Reframing the Boundaries of
Sex* (London: Penguin, 1997); Catherine A. MacKinnon,
"Sexuality, Pornography, and Method: Pleasure Under
Patriarchy," in *Feminism and Philosophy: Essential
Readings in Theory, Re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eds. Nancy Tuana and Rosemarie Tong (Boulder:
Westview Press, 1995); A. Dworkin, "Pornography is
a Civil Rights Issue," in *Debating Sexual Correctness:
Pornography, Sexual Harassment, Date Rape, and the
Politics of Sexual Equality*, ed. Adele M. Stan (New York:
Delta, 1995).
- 50 John Berger, Sven Blomberg, Chris Fox, Michael Dibb

and Richard Hollis, *Ways of Seeing* (London: BBC and Penguin, 1972).

51 MacKinnon, "Sexuality, Pornography, and Method,"
p.142.

52 Michael F. Jacobson and Laurie Ann Mazur, *Marketing
Madness: A Survival*.



Salam Nuri is a group of Muslim youth and students that named it after the Arabic word 'Salam' combined with Korean 'Nuri' which makes up the meaning 'Peaceful World.'

Aim of Salam Nuri is to provide sound vision for Islam despite of misunderstanding and epistemological bias that is introduced by western mass media and sharing culture and tradition with Muslim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In cooperation with Muslim Student Association of Korea Salam Nuri carrying out seminars, workshops, conferences and research works by inviting relevant outstanding scholars of the world in the academic field and holding youth camps and exhibitions for social activities along with operating Arabic classes and Korean class for public services.

Salam Nuri is a platform to introduce Islam everywhere and a home ground for new Muslims.

쌀람누리는 평화라는 뜻의 아랍어 '쌀람'과 '세상'이라는 뜻의 우리말 '누리'의 복합어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공부하고 세상에 참평화를 알리고자 하는 전 세계 무슬림 청년 학생모임이다. 각종 이슬람 학술연구 및 세미나를 이끌며 국내 정기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학술 연구의 일환으로 종교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출판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앞으로 이슬람 학술, 이슬람 바로 알기, 비교종교학, 종교 일반에 관한 책을 계획하고 있다.

쌀람
누리
Salamnuri





히잡을 억압적이라고 여기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주류 미디어가 히잡 착용을 이슬람의 퇴보, 잔혹성 등과 동일시함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히잡의 착용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되고 있다.

본 책은 히잡이 여성 무슬림들에게 억압적이라는 서구 대중문화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히잡이 갖고 있는 이미지 뒤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 구조를 조명한다. 또한, 히잡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식민주의적 근원을 분석하고, 히잡이 미에 대한 폭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새로운 여성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메르니시와 같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 셰이크 함자 유습 한손 자이투나 연구소 창립자 및 이사회 이사장

히잡은 최근 이슬람 담론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히잡에 관한 흥미로운 글들이 많이 있지만, 페미니스트인 무슬림이 작성한 글은 매우 드물다. 이 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 무슬림 상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독해야 할 서적이다.

별록 박사의 책은 우리 서구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히잡과 그 의미와 관련된 가정을 반박하고 있기에 주목받을 만하다.

| 줄리안 본드 크리스티안 무슬림 포럼 임원

이 책은 처음 출판됐을 당시보다 지금이 더욱 시기적절하다 하겠다. 저자는 히잡에 대해 의혹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서구 여성이지만 무슬림이 되면서 히잡을 착용하기 시작한다. 이 책은 주의를 환기하는 신선하고, 진솔하고, 흥미롭게 잘 집필된 책이다. 저자는 실제로 무슬림 여성들을 만나 히잡 착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들의 목소리로 글을 작성했다.

이 책이 새로운 독자들에게 히잡 착용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알려지기를 기원한다.

값 10,000원



9 788941 803119
ISBN 978-89-418-0311-9